

'디지털 지적의 날' ... 미래 국토 비전 제시

IX-국토부, 제5회 기념행사 개최... 지적재조사 유공자 24명 정부 포상

국토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뜻 깊은 축제가 충남 공주에서 열렸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16일 충남 공주시 I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정부·자자체·민간이 아우러진 화합과 상생의 장이었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과 IX공사 어명소 사장을 비롯해 학계·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박정수 정책관의 힘찬 기념사와 어명소 사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한 영상 축하 메시지가 분위기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16일 충남 공주시 I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어 김일 전주대 교수가 'AI·드론 시대, 지적재조사의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초청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이후 민간의 활발한 참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값진 성과가 공유되면서, 민·관·공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미래 발전 방안도 활발히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0점과 IX사장상 4점이 수여됐으며, 부산 사상구와 광주 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장관 표창을 IX광주전남지역본부 백종현·IX경남지역본부 김현진 등이 사장상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사업지구 명소를 담은 사진전, 즉석 포토존, IX대구경북지역본부 동호회 '지적캠 밴드'의 따뜻한 재능기부 공연영상 상영 등이 참석자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어명소 IX공사 사장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시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적재조사를 혁신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6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금 전달

MG새마을금고 전북, 3천만원 기부... '온정 나눔행사' 성료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6일 전북 MG 희망나눔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총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북 지역 사회복지시설 6곳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성진 지역이사와 최지능 본부장을 비롯해 전북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수혜기관장 등 지역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온정 나눔행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80개 사회복지시설에 약 4억 원의 기부금이 전달됐으며, 전북에서는 △

선덕보육원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나눔빌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곳이 선정됐다. 지원금은 보호 아동을 위한 필수 물품 마련, 어르신 의류 지원, 장애인 미술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돼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층 더 따뜻한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

김성진 전북지역이사는 "이번 온정 나눔행사는 지역사회와 새마을금고가 함께 희망의 씨앗을 심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금융 서비스를 넘어 지역과 온정을 나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기자



한전 전북본부-휴비스, 전력 파트너십 강화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력 전북본부가 대용량 전력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전북본부는 지난 16일 (주)휴비스와 '전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기술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전북본부는 올해 초 30MW 이상 대용량 고객을 전담하는 대용량 고객 전담팀을 신설해 차별화된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비 점검과 상시 기술지원, 전력 컨설팅 등 4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고객 설문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 △고장 복구 시 신속한 긴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대용량 고객 중 희망 기업을 대상 전력 실무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력망 적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소통의 폭을 넓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식약처,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개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 규제·관세 동향 공유... 맞춤형 상담으로 중소기업 지원

K-뷰티의 세계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출 중소기업의 1위 품목인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특히 강화되는 해외 규제와 관세 부과 등 현장의 고충을 직접 반영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행사에서는 △미국 MoCRA(화장품규제현대화법)에 따른 규제 동향과 주요 통관 거부 사례 △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의 규제 현황과 대응 전략 △국가별 합탈 제도 차이와 실질적 대처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특히 '국가별 화장품 관세 정책 변화 및 대응요령' 세션이 별도로 마련돼 기업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기업과 규제·관세 전문가가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1:1 맞춤형 상담 부스도 운영돼,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기업들의 수출

자신감을 북돋을 것이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이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도 "K-뷰티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규제외교와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비관세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설명회에서는 △과학기기조합 △건축물에너지조합 △전시문화조합 △반송통신조합 △전지조합 등이 나서 품질 개선, 성실한 계약 이행 수요기관과의 신뢰 구축 등 우수사례와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 열어

소기업 판로 확대·공정한 거래 기반 마련에 박차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를 열고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관련 제도를 이미 활용 중이거나 관심을 보이는 50여 조합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

여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정부·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서 가격경쟁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요기관이 조합 추천을 받은 업체 간 제한경쟁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퇴근길 선사하는 따뜻한 선율

전기안전공사, 혁신도시서 '행복음악회 시즌3'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전북혁신도시 본사 1층 새올홀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와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무료 클래식 콘서트로,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퇴근길에 가볍게 들러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공사와 전라북도가 후원하고 (사)소리문화창작소 신(대표 박신)이 연출하는 이번 무대는 세계적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알라딘 OST, 그리고 친숙한 한국 가요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레퍼토리로 꾸며진다. /오상근기자

관객들은 웅장한 클래식 선율에서부터 익숙한 대중음악의 감미로운 멜로디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행복음악회'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지역 주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정식 공연 무대라는 소중한 성장 발판이 되어 지역 예술문화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회영 사장은 "이번 음악회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힐링과 소통의 장이 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